

# '리더십과 태도' 제12차 새로운 전북 포럼

부지사·도의원·실국장·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명과 함께 열띤 토론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2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열고, 임상규 행정부지사, 도의원, 실·국장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리더십과 태도'라는 주제로 강의와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석 대표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 부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포럼이 벌써 12차인데, 그동안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등 실국 소관업무와 관련된 최신 이슈에 대해 공부했으며, 그러한 업무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직 성공의 주체는 사람이고, 우리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며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임 부지사는 이어 "리더십은 조직 성공의 촉매제로 오늘날처럼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계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으며 좋은 리더는 구성원의 잠재력을 향상시키

고, 모범을 보이며, 자적인 자극을 제공하며, 보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조직 전체의 변혁을 주도하여 성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쉐링홀(인홀) 이인석 대표는 '리더십과 태도'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리더십의 본질은 태도와 밀접한데, 가장 힘든 일은 리더가 해야 하며, 리더는 직원이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리더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며, 도정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원하는 것을 도민이 원하는 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도민에게 묻고 듣고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박물관이나 전시공간 개선 방안, 전라북도 문화의 강점, 문제점, 희망적인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2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열고, 임상규 행정부지사, 도의원, 실·국장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리더십과 태도'라는 주제로 강의와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북도, 부모급여 2024년부터 인상 지원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 올라

전북도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0~1세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현

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했으며, 내년부터 지원금을 인상해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올해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올해 35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할 계

획이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54만원을 지원받으며, 만 0세(0~11개월)는 부모급여 100만원의 차액인 46만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

노후 가공시설 보완, 신규 장비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 기대

전북도는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4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김제시가 선정되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목재 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노후 목재가공시설 교체·보강 및 신규 설치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과 시설 가동실적, 효율개선에 대한 노력도 등을 평가했다. 지자체에서 자체 선정을 통해 지원하던 방식과 다르게 2024년 사업 대상자 선정은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공모에 참가한 전국 9개소 중 최종 6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1개소를 전북도가 차지하며 목재산업분야에 대한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 목재생산업체는 나무제품 수출에 대한 기여·KS인증·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등 목재산업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과, 국산목재 소비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에서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지원한 업체는 총 39개소(78억원)이며, '23년도는 남원시 소재 업체 1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목재산업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발전·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2024년도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의 목재산업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주식회사 강동오케익이 우수상을,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 2024년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강동오케익·케어팜 수상 '쾌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주식회사 강동오케익(대표 강동오)이 우수상을, 농업회사법인 케어팜(대표 김태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산물 생산에 가공·체험·판매를 더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시상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0점 및 총상금 4,400만원이며, 수상업체에게는 농식품부 주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촉전 참가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각 시도에서 추천된 2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서면심사(1차) 및 현장심사(2차)를 거쳐 최종 중량 본선에 오른 10개 업체의 발표심사를 통하여 우수업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주요 평가 요소로는 지역농산물 사용량과 매출·고용실적 및 경영체 사업역량, 지역사회 공헌도와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내 시너지 효과 등 다방면에 걸쳐 평가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

상한 '전주 강동오케익'은 연간 지역산 우리밀 35톤 이상, 지역산 달걀 33톤 이상을 매입하여 수제 초코파이와 전병을 가공 생산하고 전국 17개소 매장 운영 및 해외수출(미국, 중국, 몽골)로 약32억(22년 기준)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에서 '나만의 복합산업 인증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지역 명소로 널리 이름을 알렸고, 2016년 6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준받아 2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익산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감초가 99%이상 수입산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2013년부터 10여년간 다양한 실험을 통한 재배기술 개발로 지역산 감초 및 약용작물(백수오, 지치황기, 우영, 도라지, 당귀)을 재배해 호흡기 염증·위염 완화 등 동물실험을 완료 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개발·판매해 주목을 받았다. 업체에서 운영하는 '달보드레(카네)' 시그니처 음료인 감초라떼는 도내의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훈 기자

##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이 지난달 29일 대기오염물질 시험·검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도내 14개 대기측정대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기측정대행업체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 대기배출원 분야 숙련도 평가 결과 및 향후 방향을 소개

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에도 적극 건의해 현장 애로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측정대행업체의 허위·부실·의심사례 등을 공유해 측정대행 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